낯선 여유

쉼 없이 정보의 홍수 속을 헤매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고생하는 나에게 소중한 '여유'를
선물해 주는 건 어떨까요?

가끔 평소와 다른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될지도 몰라요.

GAMEVIL COM2US NEWS

GAMEVIL COM2US

VOL.157
2020.06

Cover Story, '셋과 함께: 가장 편' 컴투스 '최용귀' 차석
Field, 10년을 넘어 20년을 향해 '순항 중' 컴투스 아이모(IMO)
New Face, 게임빌/GCP의 새 얼굴! 매력 넘치는 F4 특집!
Jobs&Gates, 원화가 편 컴투스 조커실 '이유성' 책임
MKT Contact, 언택트여도 즐거워! '서머너즈 워' 6주년, 'LCC 콘테스트'
Special, 더욱 화려한 라인업으로 돌아온 '컴투스KOREA 3X3 프리미어리그 2020'
Game Focus,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 FGT 리뷰!
Hot Game, 야구 시즌을 책임질 '겜프야2020'
게미컬처, 무의식과 자연의 만남, '팀보터63: 보타닉 이펙트'

게임빌컴투스뉴스

GAMEVIL-COM2US MONTHLY MAGAZINE / WWW.GAMEVIL.COM WWW.COM2US.COM

06

2020 시즌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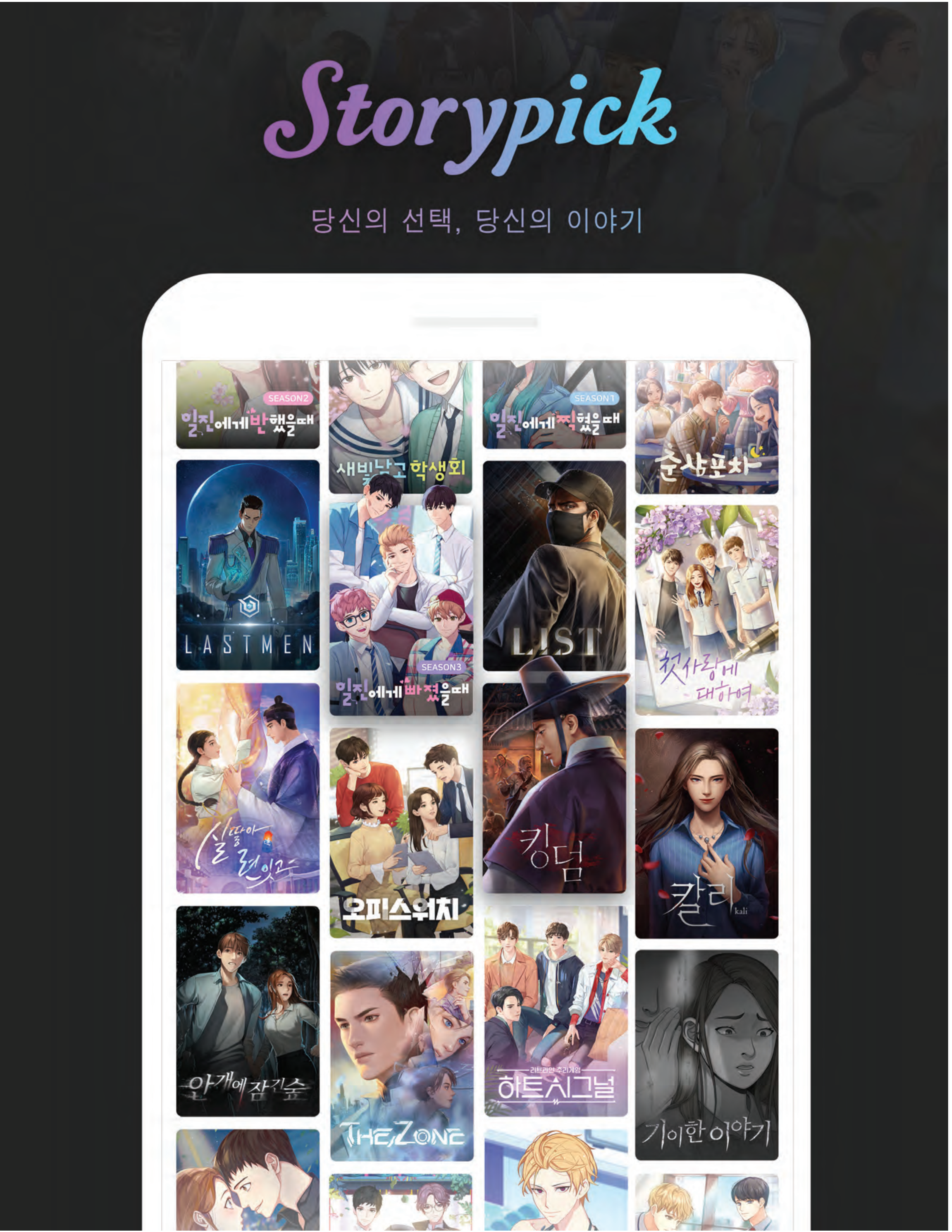
GAMEVIL

MOBILE BASEBALL GAME SINCE 2002

게임빌 프로야구

SUPER ★ STARS

샤이닝 앤젤스



2020. 6. JUNE

Global Mobile Game Leader 'GAMEVIL-COM2US'

게임빌-컴투스는 국내 모바일게임 산업을 초창기부터 이끌어 온 게임사입니다.
우수한 개발력과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글로벌 모바일게임 리더로 도약했습니다.

양사는 '손 안의 행복'을 모토로 모바일게임 산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놈', '붕어빵타이쿤', '게임빌프로야구', '미니게임천국' 등 엄지족들을 열광시킨 히트 브랜드는 물론 '서머너즈 워', '별이되어라!', '컴투스프로야구', '크리티카: 천상의 기사단', '낚시의 신', 'MLB 퍼펙트 이닝'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력 돋보이는 스테디셀러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게임빌-컴투스는 세계인들이 즐기고 공감하는 게임문화를 조성해 '게임의 가치'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양사는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중국, 태국 등 10여 개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독자적인 모바일 통합 플랫폼 '하이브'에 기반한 방대한 유저 풀을 축적하여 게임으로 하나되는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게임빌컴투스뉴스"에서는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게임빌-컴투스의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폰 안에서 펼쳐지는 행복한 게임 세상!
즐거운 게임 라이프로 출발합니다.

'GAMEVIL COM2US NEWS' 2020년 7월호에는
더욱 다양한 독자 분들의 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접속해 주세요.

www.gamevilcom2us.com/gcnews

발행인 송병준
편집인 유연상
기획·편집 게임빌컴투스뉴스 편집부
디자인 박선영
사진 고대은 강상수
기자 게임빌, 컴투스, 게임빌컴투스플랫폼 임직원, 그리고 독자여러분

게임빌컴투스뉴스 2020년 6월호 / 통권 제157호(Since 2001. 11.)
발행일 발행일 2020년 6월 1일 / 2001년 11월 창간호 발행(월간, 비매품)
발행처 게임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A동
정보간행물 신고 일자 2018. 7. 5. 신고 번호 금천, 라00216

Game Market
Overseas
Korea
Inside G-C
Congratulations
Marketing News
Marketing Insight
Marketing Contact
Play Game
Mobile
Game Focus
Hot Game
Non-Mobile
The Legend
Game People
People
CoverStory
Life
Fun
Monthly Item
Info
Game Mania
Mania
User

Not Movie but Real!
‘셋과 함께: 가장 편’

★

폴리포스팀 최용귀 차석

1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리포스팀의 ‘최용귀’입니다. 좋아하는 게임으로는 ‘헤일로’, ‘툼레이더’, ‘오버워치’, ‘X-COM’ 정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들이, 공놀이도 좋아합니다. 세 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열심히 티격태격하며 사는 아버지이고요. 철부지 남편을 거두어 준 아내와 함께 광명에서 살고 있습니다. 컴투스 사내 식당을 애용한 지는 만 5년이 조금 넘어서, 안식월 찬스를 엿보고 있습니다.

2 현재 어떤 일을 맡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클라이언트 파트에서 게임 개발에 필요한 여러 지원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맵 제작을 위한 도구나 에셋 제작에 필요한 도구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마감일이 다가오면, 눈 딱 감고 빌드 버튼을 누르며 기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3 아이들과 함께 촬영을 결정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평소 아이들과 자주 여러 곳을 다니는 편인데요. 얼마 전에 아이들 과제로 ‘가족사진’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늘 촬영 기사 역할만 하다 보니, 함께 나오는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기회에 온전한 우리 가족의 모습을 멋지게 담아낼 수있기를 희망합니다.

4 평소 가족들과 캠핑을 자주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캠핑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로는 삶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어요. 밤이 되기 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고, 밤에는 서로 골어안으며 오늘의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생명이 내는 소리를 들으며 새 아침을 느낄 때면 생명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지방으로 캠핑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시장이나 박물관, 체험 학습장을 찾아가요.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나중에 ‘아 거기~’ 하면서 교육과 연관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지루하지 않은 일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집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거잖아요. 마치 어머니께서 담가 주시는 김치가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처럼 말이죠.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5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좋은 문화생활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저처럼 어린아이들이 있는 분들께는 공원 투어를 추천해 드립니다. 한강공원 양화 지구에 모래 놀이 용품들을 챙겨가면, 신나게 모래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유도공원에 잠시 들러 가볍게 도시락을 먹으면 좋더라고요. 또 노을 보기에는 노을공원, 물놀이를 위해서는 여의도 공원, 불꽃놀이 구경 할땐 이촌 한강공원, 겨울철 야간 전등쇼 구경을 하려면 반포 한강공원, 강아지들 보고 싶을 땐 잠원지구 한강공원, 생각할 일이 많을 때는 서울 숲 산책도 좋아요.

공원뿐만 아니라, 주변 수목원을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도를 검색하면 아마 주변에 몰랐던 좋은 수목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대부도에 있는 바다 향기 수목원에 간 적이 있는데, 산책하기도 좋고, 꽃향기를 느낄 수 있고, 섬에서 바라보는 바닷가 풍경도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들만 챙기면 섭섭하니까 가끔 여유가 될 때는 아내와 공연을 봅니다. 뮤지컬 공연은 다행히도 저희 부부에게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좋은 문화생활입니다. 좋을 때 이벤트로서 찾는 문화생활도 있겠지만, 위기의 순간에 탈출할 수 있는 문화생활도 마련해 두시길.

6 올해 남은 시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으신가요?

개발 중인 게임이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좋은 팀원분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밤낮으로 회사에서 집에서 분주하게 개발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많은 분께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올해의 목표는 2년 정도 배운 탁구 기술로 사회인 리그에 한 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출전해서 한 번이라도 이기면 팀에 커피를 쏘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요.

7 마지막으로 독자분들께 끝인사와 하시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목표를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갖는 거 같아요. ‘행복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선택’입니다. 힘들 수 있겠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멋진 마음의 선택을 하다 보면 위기 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철부지 남편 포함, 넷을 기르고 있는 아내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애 낳을 때 옆에서 평생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것도 세 번이나요. 요즘 그 약속을 잘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하네요. 세계적인 기업 컴투스의 자랑스러운 사보를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글. 김선지 기자 / sjkim@

자연에 빠져드는 힐링 캠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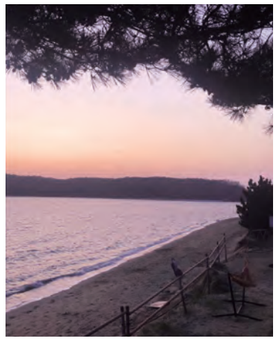
캠핑 스팟 & 초보 캠퍼를 위한 꿀팁

최근 들어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미디어의 영향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활동보다는 텐트 캠핑, 차박 캠핑 등의 야외 활동으로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캠핑을 즐기던 예전과 달리,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캠핑이나 혼캠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캠핑에는 배낭 하나 메고 떠나는 백패킹, 차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차박 캠핑, 편리한 시설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오토캠핑, 좀 더 한적하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노지 캠핑 등 그 종류도 여러 가지다.

기자는 캠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캠퍼인데, 자연에서 힐링하는 캠핑의 매력에 벌써 푹 빠져버렸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우들에게 추천할만한 '캠핑 스팟'과 '초보 캠퍼를 위한 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추천 1. 실미 유원지 야영장

#바로앞바다 #낙조맛집 #환상적석양



주소
인천 중구 큰무리로 124-17 (야영료 텐트당 2만원)
특징
* 벚꽃이 가득한 진입로
* 인기가 많아 일찍 가서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함
* 개수대 있음, 화장실 있으나 아주 청결하진 않음
* 간조 때 열리는 바닷길로 실미도 진입 가능
* 공항 코스와 비슷해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 탁 트인 도로를 달리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음

추천 2. 강릉 사근진 해수욕장

#맑은바다 #노을이쁨주의 #차박추천 #모래사장캠핑

주소
강원 강릉시 사근진 해수욕장 (야영료 무료)
특징
* 캠핑도 하고 강릉 여행도 가능
* 닭강정, 꼬막 비빔밥 등 무궁무진한 강릉 맛집 탐방가능
* 주차장이 협소하여 일찍 도착해 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
* 공용 화장실 있음
* 바다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장소로, 맥주 한 캔과 함께 낚시의 손맛을 즐기기에 최적

추천 3. 홍천 개야리 유원지

#맑은강가 #푸른산 #돌바닥 #돌수제비각 #만물낚시

주소
강원 홍천군 서면 개야리 유원지 (야영료 무료)
특징
* 드라이브 코스가 좋고 주변 경치가 예술
* 가는 길에 간장게장 맛집이 있음 (청정 게장촌 사랑방 추천!)
* 근처 한덕교 밑보다 사람이 적지만 화장실과 거리가 멈 (한덕교는 근처 간이 화장실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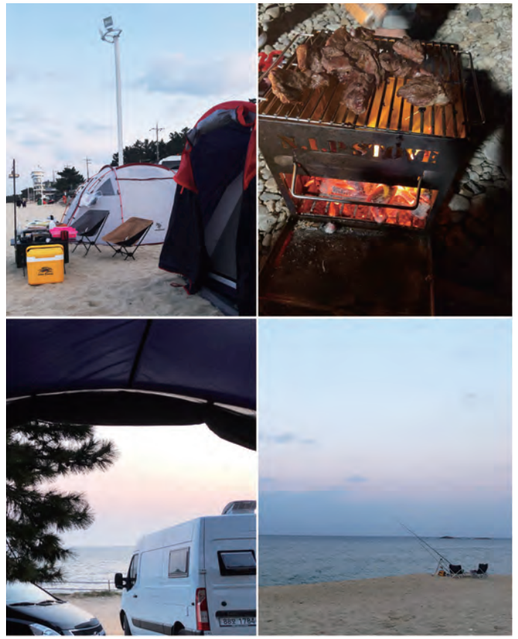
초보 캠퍼를 위한 소소한 팁

★ 초보 캠퍼가 갖추면 좋은 최소한의 장비

* 의(衣) 세탁이 용이한 편한 운동복 차림이 베스트 / 슬리퍼 하나 챙기면 편한 것은 당연지사
* 식(食) 가스버너와 냄비 / 화로대(장작, 숯) / 부탄가스와 토치 / 그 외 기타 먹을거리 등
* 주(住) 텐트(차박일 경우 차박 매트) / 텐트 내 에어매트 또는 발포 매트 / 침낭 / 의자 및 접이식 테이블 등

★ 알아두면 좋은 팁!

* 장작, 숯에 불 붙이는 법 식용유 한 컵을 숯이나 장작 가운데에 놓고 종이를 이용하면 불이 쉽게 붙는다. 식용유가 없다면 장작을 토치로 가열한 후, 빨대를 이용해 아래에서 위로 2~3분 불어주면 불이 잘 붙는다.
* 텐트 피칭 30cm 이상의 긴 팩을 구비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모래사장에 피칭하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 짧은 팩은 뽑힐 수 있다.
* 장비 구매 처음 캠핑을 시작한다면 아직 나에게 맞는 레저 활동인지 확신이 서기 전 단계이므로 비싼 브랜드의 장비는 추천하지 않는다. 다만, 장비 구매 전 꼭 차량 트렁크의 길이를 확인하자. 특히 의자의 경우 사놓고 등받이가 길면 차량에 수납하기가 애매하다. (기자 경험)
* 보온 봄/가을/겨울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핫팩이 필수다. 자기 전 침낭에 몇 개 넣어 놓으면 좋다. 전기나 연료 난로를 사용할 경우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세차 캠핑 후에는 피곤해도 세차를 권장한다. 특히 바다 근처 캠핑할 경우 차에 염분이 스며들어 오래 방치하면 녹이 생길 수도 있다. 차 안에 모래들은 덤이다.
* 에티켓 처음 왔던 상태 그대로 떠나자. 캠핑은 자연을 느끼는 최적의 여가 활동인 만큼 에티켓과 안전 수칙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관리된 사유지가 아닌 노지 캠핑인 경우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불 사용 및 쓰레기 처리 등에 각별히 주의하는 매너 캠퍼가 될 수 있도록 하자.



마치며 ..

이 글을 읽고 캠핑 뽐뿌가 왔지만, 장비 준비가 번거로워 도전할 엄두가 안 나는 사우님들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길. 초보자인 기자도 갓성비 기본 템들로 캠핑에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 최소한의 장비를 꾸려 캠핑을 시도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캠핑 장비를 렌트하는 곳도 많으니 요즘처럼 캠핑하기 딱 좋은 계절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장소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

글. 최철 기자 / choicheol@

10년을 넘어 20년을 향해 '순항 중'

센트럴팀 아이모(IMO)

★ (위) 최희락 책임, 이재상 책임, 심제완 차석, 박정호 선임, 이용진 책임 / (아래) 이종훈 차석, 최원종 책임, 경규현 선임

'아이모'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용진: 10주년을 맞이한 모바일 MMORPG '아이모(TWOM)'를 디렉팅 하고 있습니다.
규현: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완: '아이모' 그래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종: 10년째 변함없이 '아이모' 클라이언트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훈: '아이모' 클라이언트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상: '아이모' 외길 인생 10년. 오늘도 '아이모' 서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정호: '아이모' 서버와 막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락: '아이모' 서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모'가 2006년부터 서비스한 만큼 다들 오랜 기간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원종: 2011년 입사와 함께 시작한 '아이모', 지금까지 클라이언트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 입사년차가 '아이모' 서비스 연도네요.
재상: 2011년 스마트폰 개발 재시작과 함께 합류하여 강산이 한번 변할 만큼 함께 있습니다.
종훈: 저는 2009년부터 2년 정도 '아이모' 아이폰 버전의 개발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프로젝트에 몸담았다가 2019년 초에 '아이모'에 재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과 어떤 점이 닮고 싶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칭찬도 좋아요!

원종: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많은 일들 사이에서도,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는 용진 책임이 최고입니다.
제완: 항상 맡은 일을 묵묵히 하는 규현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모'가 지금까지 사랑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아이모'만의 매력을 뽑아보자면요?

정호: 수동 컨트롤 MMORPG, 아기자기한 그래픽 속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PvP!
규현: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적인 부분이 매력일 거 같아요.

'아이모'를 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본인들만의 꿀 팁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재상: 첫째로 WI-FI 신호가 좋은 곳, 둘째로 인터넷이 잘 되는 곳, 셋째로 LTE가 잘 터지는 곳입니다. 네트워크가 좋은 곳에서 하세요.
규현: 함께 할 수 있는 길드와 친구를 찾아보세요. 게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빠르게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올해 '아이모'에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유저들에게 공개해 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종훈: 피처폰 시기부터 개발되어 온 '아이모'는 가장 큰 변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게임 엔진을 통한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고 모든 코드들이 재작성 되고 있습니다.
용진: 새로운 지역과 보스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드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개인 혹은 팀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규현: 지금보다 더 많은 유저들이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일 것 같아요
제완: '아이모'가 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래픽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원종: 우리나라에서 최장시간 라이브 하는 MMORPG로 기록되고 싶습니다. 이제 10주년 했으니 20주년까지 10년 남았네요.
종훈: 새로운 버전을 완성하고 싶고, 레트로 감성의 독보적 MMORPG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재상: 든든한 모습으로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모두의 추억을 지킬 수 있는 방주 같은 시스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보다 더 쾌적한 게임 환경을 만들고, 부정이용자를 꾸준히 잡아내어 유저에게 신뢰를 주는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희락: 길드 스킬, 대만 로컬 라이징
용진: 20주년 이벤트

끝으로 '아이모'를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그 이유는요?

정호: 별이 다섯 개 / 저희는 기본기가 탄탄하고 오래가는 게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 빈태희 기자 / tang97@

게임빌, 게임빌컴투스플랫폼 뉴페이스!

매력 넘치는 F4 특집!

★ (왼쪽부터) 이동석, 우현준, 안정현, 신민

간단한 자기소개와 직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정현: 안녕하세요. 4월 게임빌에 입사하여 앞으로 구축될 통합 인사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맡게 된 인프라관리파트 안정현입니다. 나이는 만 39세('만'이 중요)이고,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우현준: 안녕하세요. 사업개발실 L10n팀에서 글로벌 운영을 맡고 있는 우현준입니다. 게임빌의 해외 유저들이 게임을 재밌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게임 정보와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직접 소통하며, 업데이트 시 Region QA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신민: 안녕하세요. 서비스모니터링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민입니다. 게임의 안정적인 서비스 상태 유지를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체계로 결제와 서버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동석: 안녕하세요. 플랫폼서버1파트에서 HIVE 멤버십/인증파트를 맡고 있는 이동석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다녀보니 인상 깊거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안정현: 첫 출근 시 약간 놀랐던 점은 복장이었습니다. 자유롭다고는 들었지만 사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복장이었죠. 반바지, 모자 등등 정말 제가 원하던 복장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신경 쓰는 것을 줄이고 오로지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라고 느껴져서 일로서 회사의 배려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삼시 세끼를 모두 제공하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우현준: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다들 각자의 업무를 잘 해내 가시는 팀원분들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항상 잘 챙겨 주시는 김나리 실장님, 이정윤 팀장님도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습니다.

신민: 사내 카페가 예쁘고, 전반적인 복지혜택이 정말 좋습니다! 식당 밥도 맛있고 직원 복지를 위해 업무 외적인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써주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동석: 일단 저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많이 배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통근버스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식 운영은 안하지만 맛있는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점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자에게 필요한 PC 비품을 얼마든지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재미있었고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무엇인가요?

안정현: 이전 직장 동료들과 홈런 배틀을 많이 했었습니다. 원래 롤플레잉 장르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FGT 때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재미있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정식 출시가 되면 지인들에게도 적극 추천할 생각입니다.

우현준: '위닝일레븐'이라는 축구 게임과 미식축구 게임인 'Madden'입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이 두 게임을 하느라 학업을 소홀히 했던 기억이 나네요.

신민: '서머너즈 워'입니다! 자사 게임 홍보 목적은 아니고요. 2018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 정도의 게임성과 완성도, 밸런스를 갖춘 게임이 있단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둠속성 이프리트, 물속성 피닉스를 조합한 후부터는 푹 빠져서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실시간 아레나 금3을 목표로 덱 조합하면서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네요.

이동석: PC 게임을 주로 하는 편이고, 그중 'LoL'을 즐겨 합니다. 'LoL' 대회 경기 영상도 자주 챙겨 보는 편입니다. 현재는 컴투스의 대표 게임 '서머너즈 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미나 특기가 있나요? 또는 여가시간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안정현: 올해부터 캠핑을 시작한 초보 캠퍼입니다. 캠핑 가기 전 준비, 특히 차 트렁크에 짐을 뺐다 겼다 테트리스하듯 쌓아야 하는데, 이 순간이 제일 힘듭니다. 대학 입시 준비할 때 보다도 머리를 써야 하고, 또 다녀와서 정리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저녁 먹은 후 맥주 한 캔 하며 장작불 피워 놓고 때리는 불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 하루빨리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고생하시죠(웃음).

우현준: 모든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는 야구부, 축구부, 수영부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는 작년부터 시작한 골프에 심하게 빠져서 대부분의 시간을 관련 활동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신민: 쉬는 날에는 콘텐츠를 감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카페에서 여유롭게 책 읽는 것도 좋아해요.

드라마, 영화, 책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좋아요. 이야기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로 인해 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동석: 취미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인데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 또는 자신 있거나 잘하는 일이 있다면?

안정현: 정말 자신 있는 건 13년 육아와 살림을 바탕으로 한 애들 목욕시키기, 청소, 설거지, 그리고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요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와이프 잔소리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리기 등이 있습니다.

우현준: 특별히 잘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지만,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하려 노력하고,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일 때도 긍정적으로 잘 헤쳐 나가는 편입니다.

신민: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고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각자 가진 고민을 함께 나누다 보면 어느새 저 또한 힐링 받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동석: 장점이나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따로 없지만 그래도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여행을 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많이 알아보고 계획을 짜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의 저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0년 올해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안정현: 업무적인 목표는 내년 1월 오픈 예정인 인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과 안정적인 오픈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마라톤 풀 코스 완주입니다. 춘천마라톤 Go Go!!!!

우현준: 새로운 회사인 만큼 잘 적응해서, 팀원 및 협업 부서에 폐 끼치지 않고, 글로벌 운영파트가 자리를 잡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민: 영상편집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취미로 소소한 행복을 담는 영상들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회사 생활 브이로그나 '서머너즈 워' 영상을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이어리에 계획 세우기만 벌써 수개월째니... 당장 채널부터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웃음)

이동석: 작년에는 자격증을 2개를 취득했는데, 올해 목표도 자격증 2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지방도 많이 없애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안정현: 좋은 팀원들을 만나 좋은 분위기에서 일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팀 평균 연령을 미친 듯이 올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파악과 회사 생활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준: 좋은 회사에서 좋은 분들과 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시국이 안정되어 팀 회식하고 싶습니다!)

신민: '서머너즈 워'를 많이 애정하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설렙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석: 게임빌컴투스플랫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최대한 빠르게 업무에 적응해서 올 한 해 같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박지영 기자 / luckyjamong@

2020 컴투스 SUMMER 인턴십 지니어스 2기 com2uS

모집기간
2020년 5.20 (수)
~ 6.8 (월) 14시 마감

인턴십 기간
7.6 (월) ~ 8.28 (금) 총 8주

지원방법
온라인지원 (com2us.recruiter.co.kr)

공통지원자격
기졸업자 혹은 2020년 8월 /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

모집부문
게임사업 • 마케팅 / 게임기획 / 게임아트 / 프로그래밍 (클라이언트, 서버) / AI개발

전형절차
온라인 지원 > 서류전형 > 면접 & 필기테스트 > Com2uS GENIUS 프로그램 대상자 선발
• 프로그래밍 / AI개발 직무에 한하여 필기테스트 진행 예정
• Com2uS GENIUS로 선발된 분들은 체계적으로 디자인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천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전형일정
서류 전형 : 6.12 (금) 17시 예정
필기테스트 및 1차 면접 : 6.17 (수) ~ 6.24 (수), 상세 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
인턴십 대상자 발표 : 6월 말 예정

문의
메일문의 : com2usrecruit@com2us.com
카카오톡 1:1 문의 : 컴투스채용 (플러스친구 등록 후 상담 가능)

언택트여도 즐거워!

‘서머너즈 워’ 6주년, 글로벌 소환사와 즐기는 ‘LCC 콘테스트’

6주년 기념 이벤트 완료, 전 세계 소환사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글로벌 히트작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가 출시 6주년을 맞았다. 글로벌 소환사들이 더욱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신비의 소환서 100장 지급 이벤트, 전설의 대장장이 이벤트 등 6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인게임 이벤트와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다시 한번 지난 6년간 ‘서머너즈 워’를 플레이해 준 글로벌 소환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중 전 세계 소환사들과 각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하며 화제가 되었던 ‘LCC(Low Cost Contest) 콘테스트’를 소개한다.

일상 속 코믹 감성을 깨워라! ‘LCC 콘테스트’란?

LCC(Low Cost Contest) 콘테스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 글로벌 소환사들에게 ‘서머너즈 워’로 일상 속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기획되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실생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저렴하고 간단한 소품으로 참여가 가능한 이 이벤트에, 글로벌 소환사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바이두, VK 등의 다양한 각국의 주요 SNS 채널을 통해 총 880여 개의 다채로운 작품들로 이벤트에 참여했고 거리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서머너즈 워’ 명성만큼 화려한 인플루언서 라인업!

특히 이번 코스프레 콘테스트에 각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참여하여 큰 재미를 선사했다. 국내에서는 인기 크리에이터인 침착맨 주호민 콤비가 침착맨 트위치를 통해 과자, 면봉, 청소기 등 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물품으로 코스프레를 기획하며 즐기는 과정을 라이브로 방송해 화제를 모았다. 이외에도 ‘오킹’, ‘소니쇼’, ‘쫀득’ 등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LCC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2차 공모전에도 국내 소환사들이 활발히 참여했으며, 재치 있는 참여작들이 많았다.

또한 태국에서는 이미 저비용 코스프레로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배드민턴 셔틀콕을 활용하여 ‘서머너즈 워’ 대표 몬스터인 아크엔젤을 코스프레한 사진을 올려 하루 약 10만건의 ‘좋아요’를 얻으며 주목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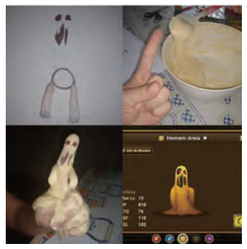
‘LCC 콘테스트’ 화제의 수상작은?

유명 인플루언서 외에도, 각국의 숨은 코스프레 고수들이 LCC 콘테스트에 참여하며 이벤트 내내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중 콘테스트 개최 취지와 각 수상 기준에 따라 콘테스트 시상 및 경품이 돌아갔다.

그중, SNS에서 반응이 가장 좋은 참여작에게 주어지는 일명 ‘따봉상’은 청소용 대걸레와 색 도화지, 대걸레 봉으로 ‘비스트라이더’를 표현하여 약 17,000건의 좋아요를 받은 태국의 ‘primkung’이 수상했다. 콘테스트 취지에 가장 어울리는 참여작에게 주어지는 ‘Low-cost상’은 밀가루 반죽을 이용해 ‘샌드맨’을 표현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발되었다. 그 이외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몬스터를 표현한 ‘반려동물 참여상’과 게임 내 건물, 문양 등을 표현한 ‘비몬스터분야상’, 다수의 작품을 응모한 소환사에게 돌아가는 ‘다작상’ 등도 눈길을 끌었다. 지면에 소개하지 못한 더 많은 작품들은 ‘서머너즈 워’ 공식 페이지(www.summonerswar.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접속하자!

★ 당첨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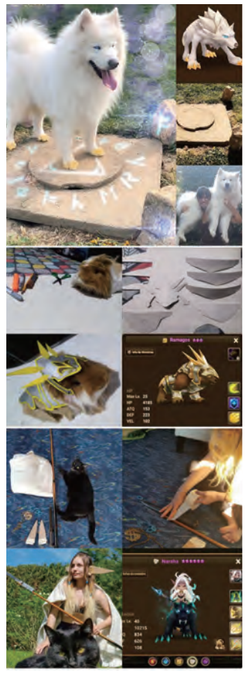
1 따봉상
SNS에서 좋아요/하트/댓글 등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작품



2 Low-cost상
저렴한 비용으로 웃음을 준 작품

3 빛과 어둠의 상
빛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품

4 비몬스터분야상
건물, 문양 등 몬스터가 아닌 것을 표현한 작품들 중 Top 3



5 반려동물 참여상
반려 동물과 함께 참여한 작품들 중 Top 3

글. 김희원 기자 / heewonkim@

원화가 편

컴투스 조커실 '이유성' 책임

먼저 간단한 소개와 하시는 업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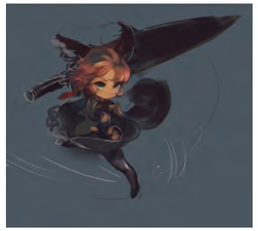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조커실 원화가 이유성입니다. 주로 3D나 최종 리소스의 기본이 되는 설계도를 그리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가끔은 다른 업무 쪽도 투입되는데, 홍보에 필요한 일러스트나 게임에 필요한 리소스 제작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작품들을 작업하셨는지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빛의 계승자', '스카이랜더스', '크리티카' 온라인과 모바일에 원화가로 참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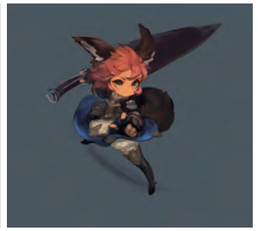
- ♣ '빛의 계승자'는 주인공이 가진 사연과 서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작업했고, 전체적인 구도와 분위기가 잘 나와서 마음에 드는 작업물입니다.
- ♣ '스카이랜더스'는 팀에 처음 들어와서 진행했는데, 업무에 적응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면서 캐릭터들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 '크리티카'는 '각성'이라는 분기점에 맞춰 작업했고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각성하면서 탈피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화를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큰 틀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1단계**
간단하게 러프한 동세와
실루엣 위주로 스케치를 합니다.

▶ **2단계**
빛을 많이 받는 부분부터 입체감을
잡아줍니다.



▶ **3단계**
지저분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세부 묘사를 합니다.

▶ **4단계**
전체적으로 묘사를 올린 후 보정을
합니다. 사인 넣으면 마무리!

참여했던 작품 중 재미있던 일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크리티카' 모바일에서 아바타 작업을 주로 했는데, 멋있고 강한 느낌 위주로 하다가 힘을 빼고 정말 간단한 트레이닝 복 아바타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유저분들에게 호평을 받아서 복잡 미묘한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장르의 원화가 있다면?

'성검전설', '드래곤 퀘스트'처럼 전형적인 용사류 스토리를 좋아해서, JRPG 장르를 해보고 싶어요. 특성상 평범하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원화가 있다면?

'S4리그'라는 게임을 통해서 접하게 된 일러스트레이터 파나마맨(박진영)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암 투병으로 이른 나이에 별세하셔서 더는 다른 그림을 볼 수 없어 참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합니다.

원화가 지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을 알려주신다면?

저는 인체 공부할 때 사진 위주로 했습니다. 다양한 교본들이 있지만, 개성이 강한 그림체의 교본은 그쪽으로 그림체가 변형될 수도 있거든요. 처음 시작하신다면 사진 위주로 추천 드리고, 색감은 'Color and Light' 책이 좋았습니다. 그 외에는 역시 많이 보고, 듣고, 그려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조금 더 다양한 장르의 그림을 개성 있게 잘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제가 존경하는 원화가 분처럼 누군가에게 '원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이한빈 기자 / hanbin@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 FGT

#이세계 영주가 되었다, #반갑다 소환수야, #영지 약탈 꿀잼, #내 영지는 절.대.안.전.해

2014년 출시해 6년이 지난 지금도 글로벌 유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서머너즈 워'가 백년전쟁이라는 색다른 모습으로 유저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할 유저들을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이하 '백년전쟁') FGT를 가감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소개한다.

천공의 섬, 그 이전의 이야기

먼저 '서머너즈 워'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만큼 '서머너즈 워'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서머너즈 워'의 풀네임은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다. '서머너즈 워' 인트로 영상을 보면 마나 크리스탈(가공할 힘을 지닌 순수한 마나의 결정체!)을 두고 마법 전쟁을 벌였는데 무려 100년이나 계속되었다고 한다. 전쟁이 너무 길어져서 결국 모든 분쟁은 아레나에서 해결하기로 했다고. '백년전쟁'은 아레나 창설 이전에 벌어진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 잠깐만 알고 가자, 세계관 ★**
>
> 고도화된 유적과 유물을 연구한 에프라나 왕국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영지의 영향력은 점차 커졌다. 이를 우려해 유적지를 통제하던 에프라나 국왕 '워렌 케스웍'은 반란 세력에 의해 결국 시해되고, 왕의 빈자리를 향한 영주들(유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원작의 재미에 전략 전투(RTS)를 더한 '백년전쟁'

RTS(Real-time strategy, 혹은 Real-time strategy simulation)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전략 게임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시대를 풍미한 게임 '스타크래프트'가 있는데 보통 자원을 모아서 건물을 짓거나 병력을 생산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끝나게 된다. '백년전쟁' 또한 기본적으로 RPG 및 RTS 장르에 충실하게 짜여 있다. 크게 '영지 발전 + 몬스터 육성 + 약탈 및 실시간 PvP'로 구성되어 있는 '백년전쟁'에 대해 지금부터 상세하게 살펴보자.

이세계 영주가 되었다

RTS는 워 게임(war-game)이다. 그런 만큼 다른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내 영지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백년전쟁'에 처음 접속하니 낯설고 황량한 영지가 나를 반겼다. 물론 튜토리얼을 통해서 전반적인 감을 어느 정도 익혀 나가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금화와 마나석이라는 자원을 이용해서 영지를 발전시키게 된다. 유저는 주성(본진)을 바탕으로 몬스터 소환 제단 및 연구소, 연맹 건물, 재화 건물, 기타(아티팩트/시계탑/임무의 뢰소) 등 다양한 건물들의 레벨을 골고루 올려야 하는 구조다. 이 영지의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내 몬스터들을 강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재화의 수급도 있지만, 내 결계(영지 방어 시설)의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재화를 모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털리는 건 한순간이니 결계에 몬스터 배치와 패시브 스킬 배치를 꼭 하도록 하자. 게다가 영지를 발전시켜 연맹 관련 건물을 건설하게 되면 다른 유저와의 협력을 통해 내게 필요한 몬스터 카드를 구할 수 있고, 같은 연맹 동지의 도움으로 영지 건물의 건설 시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들 알겠지만 한번 업그레이드를 누르면 거의 현실에서 건설하는 것만큼 시간이 필요한 게임도 있다.)

어... 반갑다 몬스터야?

'백년전쟁'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머너즈 워'의 몬스터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굉장히 어른스러워진 모습으로 기존의 '서머너즈 워' 속 귀여움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 처음 소환할 때 당황하지 말고 태연하게 환영해 주자.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기본적으로 몬스터를 소환해서 전략적으로 '나만의 몬스터 덱'을 꾸려야 한다. 하지만 가장 높은 전설 등급으로 채운다고 꼭 강한 덱은 아니다. 공격형 몬스터와 방어형, 보조형 몬스터를 적절하게 배치하거나 상황에 맞는 특화 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몬스터의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같은 카드를 필요한 장수만큼 모아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과 룬을 장착하는 방법(그렇다. '서머너즈 워'의 그 '룬'이다)이 있다. 태생 등급이 높을수록 카드를 강화하기가 어려워지지만 룬은 제작에 필요한 정수를 꾸준히 모아서 제작한다면 충분히 쓸만한 룬들을 쉽게 모을 수 있다(강화 실패가 없다!). 룬도 룬이지만 몬스터 강화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킬석'이다. 이 스킬석을 몬스터에게 장착하면 스킬석에 적혀있는 효과가 스킬에 추가되는데 일반이나 희귀등급의 몬스터도 스킬석 여부에 따라 충분히 위협적인 몬스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전투와 카운터

모든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던가? '백년전쟁'에서도 그렇다. 몬스터의 특성이나 유저가 추구하는 덱 방향에 따라서 8마리 몬스터를 전열과 후열로 나눠서 배치하고, 전투에서 유저가 사용할 스킬(최대3개)을 장착한다. '실시간'으로 전투가 진행되기에 상대방의 몬스터 스킬이나 유저 스킬에 따라서 적절하게 카운터를 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골렘이 내 전열 몬스터를 얼리는 기술을 발동 할 때, 내 몬스터 중에 상대방의 골렘을 기절(스턴)시킬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편 몬스터 스킬을 눌러서 카운터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TCG적 요소인 마나 코스트 개념이 있어서 높은 코스트의 스킬들을 마구잡이로 발동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간의 적절한 스킬 카운터가 승부의 방향을 가르게 된다. 유용한 스킬을 마지막까지 아껴서 승부를 역전시키는 부분이 아주 좋았다.

이제는 정말 약탈뿐이야!

'백년전쟁'은 앞서도 말했지만 내 영지의 발전 못지않게, 다른 영지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약탈은 NPC 약탈전, 유저 약탈전 및 실시간 대전(PvP) 3가지로 구분되는데, NPC 약탈전은 주성의 발전에 따라서 다음 스테이지가 열리는 구조이며, 유저 약탈전은 다른 유저가 영지에 배치해 둔 몬스터들을 뚫고 재화를 얻을 수 있다. 상대방의 수준과 내 수준을 비교해서 자동으로 쉬움, 보통, 어려움의 난이도로 보여주기에 신중하게 공격할 수 있다. 실패해도 특별히 잃는 것은 없지만, 약탈하기 위한 아이템(열쇠)이 2시간에 하나가 충전되기에 상대적인 손해와 함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다.

곧 만나러 갑니다

'백년전쟁'은 이번 사내 FGT 기간이 지나고도 직원들이 열려 있는 서버에 접속해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높은 재미와 몰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영지를 발전시키는 뿌듯함도 있지만, 나름대로 키운 몬스터들로 상대방과 겨루되 몬스터의 성능 + 유저의 조종 실력(카운터)에 따라서 강한 상대도 꺾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다. 이번 FGT를 통해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하고 하루빨리 전세계 유저들과 함께 플레이할 날이 오기를 한 명의 유저로서 간절히 바란다.

글. 안현주 기자 / fhaldh@

SUMMONERS
WAR

'컴투스 KOREA 3X3 프리미어리그 2020'개막

더욱 화려한 라인업으로 돌아왔다★

컴투스가 후원하는 3대3농구 프로리그 '컴투스 KOREA 3X3 프리미어리그 2020'이 개막했다. 지난달 2일 고양 스타필드 특설코트에서 리그 시작을 알린 '컴투스 KOREA 3X3 프리미어리그'는 국내 최초 3대3농구 프로리그로 지난 2018년에 출범해 올해로 세 번째 시즌을 맞는다. 컴투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해 3대3 농구의 국내 무대 활성화 및 저변 확대에 나섰다.

올해 프로리그는 최근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안전을 최우선 하기 위해 무관중 경기를 원칙으로 내세웠으며, 온라인 중심으로 리그 운영을 결정했다. 개막전도 공개 장소가 아닌 루프탑에 특설코트를 마련해 진행했으며, 현장을 찾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아프리카TV와 케이블TV 채널인 SBS-아프리카 TV를 통해 생중계했다.

총상금 1억 원을 걸고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를 치르며 우승팀을 가리는 이번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리그에 출전한 '데상트'와 '박카스'를 포함해 총 6개 팀이 참가했다. 특히, 개막 라운드에는 한국 프로농구를 대표했던 간판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지난해 우승팀 '무쏘' 출신 이승준과 이동준을 비롯해 올 시즌을 끝으로 프로농구 '서울SK'에서 은퇴한 전태풍이 '한솔레미콘' 유니폼을 입고 3대3농구 무대에 데뷔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대표 출신 슈터 방성윤도 라이벌팀으로 가세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4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초반에 이변의 2연승을 가져가며 선두권으로 출발했던 '한울건설'과 '스코어센터'는 4위와 6위로 초반보다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개막 라운드에서 2연패를 당했던 '데상트'는 이후 6경기 6연승을 달리며 2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1위와 단 10점 차이다. 한준혁이 복귀한 '아프리카 프릭스'도 4라운드 1위를 차지하며 우승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는 '한솔레미콘'도 만만찮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모여 화제를 모았던 팀답게 단단한 모습으로 4라운드까지 선두를 내주지 않고 있어, 과연 누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리그 중간 순위는 1위 '한솔레미콘(320)', 2위 '데상트 벰퍼스(310)', 3위 '아프리카 프릭스(290점)', 4위 '한울건설(250점)', 5위 '박카스(235점)', 6위 '스코어센터(215점)'다.

'컴투스 KOREA 3X3 프리미어리그 2020'은 오는 6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정규리그를 진행하며, 6월 27일 플레이오프 경기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선발하게 된다. 경기 영상은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글. 송준석 기자 / junsukms@

서울 능동의 장동환 님

'서머너즈 워' 편

'릴레이게임'은 매달 릴레이로 모바일게임을 추천하며 이어가는 코너입니다.
지난달 김주연 님에 이어 장동환 님이 추천을 받으셨네요.
과연 다음 호엔 어느 분이, 어떤 게임으로 바톤을 이을까요?

권오준(두바이) ▶ 임지훈(서울 장안동) ▶ 배주연(서울 후암동) ▶ 배준영(대구 신천동) ▶ 심양홍(서울 양재동) ▶ 강석진(서울 도봉동) ▶ 최한민(인천 부평동) ▶ 이지윤(부산 해운대) ▶ 이경호(서울 잠실동) ▶ 이지혜(인천 산곡동) ▶ 김준환(경기도 파주시) ▶ 김진태(인천 경서동) ▶ 황민화(서울 화곡동) ▶ 김현진(서울 독산동) ▶ 강석화(인천 연수동) ▶ 홍영지(익산 영등동) ▶ 류경선(서울 오류동) ▶ 이승은(청주 용정동) ▶ 김중진(서울 논현동) ▶ 김주연(서울 목동) ▶ 장동환(서울 능동) ▶ ?

안녕하세요. '서머너즈 워'를 약 3년 동안 플레이 중인 32살 장동환입니다. 모바일 RPG를 찾다가 오랫동안 서비스 중인 '서머너즈 워'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글로벌 인기작인만큼 커뮤니티가 활발해, 신규 유저 입장에서 쉽게 정보를 접하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몬스터와 여러가지 조합이 있었고, 공략을 찾아서 공부하고 룬을 맞추느라 지금까지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서머너즈 워'와 함께하는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서머너즈 워'에 들어갑니다. 쌓여있는 마나석과 크리스탈을 획득하고, 길드 출석과 친구에게 하트를 보냅니다. 길드전에 할당된 칼을 모두 소모하고 미궁이 열려 있으면 등불도 최대한 모두 사용합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거던에서 룬을 캐고 점심시간에는 월드보스를 돌린 후 크리스탈을 추가로 얻기 위해 일일 미션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열린 길드전 칼을 모두 소모합니다. 이후부터 거던, 용던, 죽던 중 필요한 룬에 따라 한곳을 정해서 '하루'가 끝날 때까지 틈틈이 룬 파밍을 합니다. 이렇게 '매일' 플레이를 하다 보면 모든 콘텐츠를 이전보다 쉽게 돌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같이 하면 재미가 2배

저는 '서머너즈 워'의 많은 콘텐츠 중 길드전이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혼자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물어보고 게임을 진행하지만, 성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길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진짜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길드 콘텐츠 중에서도 점령전은 길드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진행하면 좋기 때문에 길드 단체방에서 공략을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혼자 플레이하는 경우와는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서머너즈 워'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단기간에 이룰만한 목표는 없습니다. 길게 보고 갖고 싶은 몬스터를 모두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고요? 이 게임은 수집형 RPG니까요. 저는 간판 몬스터인 '빛속성 아크엔젤'을 꼭 갖고 싶은데 언제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나온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길드원들과 함께 재미있게 오래오래 플레이하는 게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서머너즈 워'가 오래 서비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너즈 워'는 다른 게임과 달리 쉽게 얻을 수 있는 2, 3성을 잘 키워 모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메인 퀘스트를 따라 성장하다 보면 무리 없이 초반 지역 클리어가 가능하고 이후 성장이 멈출 때 공식 카페에서 공략을 참고해 진행 방향을 잡고 나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육성법을 처음부터 따라 하기보다는 '서머너즈 워'만의 재미 요소를 찾아보고 애정이 생길 때쯤 공략을 보시면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원하는 몬스터, 룬을 획득하여 즐겁게 게임하기를 바랍니다.

글. 김민식 기자 / minsik@

역대급 혜자 이벤트와 꽉찬 콘텐츠! 야구 시즌을 책임질

'게임빌프로야구 2020 슈퍼스타즈'

어느덧 만개했던 벚꽃이 지고 푸른 잎이 돋아 바람에 흩날리는 여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은 모르는 것일까. 날씨는 화창하기만 하다. 어느덧 야구 시즌이 돌아왔고, 어린이날 무관중 개막으로 그 첫 시작을 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야구 직관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게임빌프로야구 2020 슈퍼스타즈(이하 겜프야)'가 집에서도 야구를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대규모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준비했다니 확인해보자.

코어 강화를 통해 더욱 강하게! '트레이너 코어 시스템'

구단의 선수를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는 '겜프야' 유저에겐 당연한 것이다. 때마침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신규 시스템이 추가되었는데, 이름하여 〈트레이너 코어 시스템〉이다. 코어는 삼각, 사각, 오각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양이 일치하는 슬롯에만 장착할 수 있다. 코어에는 노말부터 레전드까지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등급이 높을수록 선수에게 더 많은 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코어는 모양과 등급이 같은 코어를 사용해 강화할 수 있는 데, 현재 진행 중인 플래닛 리그 등의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으니 하니 어서 달려보도록 하자.

고봉밥 같은 보상, 섭섭하지 않게 꾹꾹 눌러 담았어요~

★ 리그 보상 전면적 개편'

플래닛 리그의 보상이 전면적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행성별 최초 클리어 보상이 추가되고, 경기 보상과 시즌 보상이 변경되었다. 특히 플래닛 큐브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목록과 확률이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올라갔다. 슈퍼스타리그 또한 경기 보상, 일일 보상, 시즌 보상, 랭킹 보상이 전반적으로 대폭 상향되어 더 좋은 리그 보상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신규 상점 추가

플래닛 리그와 슈퍼스타리그를 통해 얻은 코인으로 각 상점에서 선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리그 보상과 상점을 통한 성장 강화를 통해 플레이의 즐거움을 한층 더했다. 이처럼 전면적인 보상 개편에 대해 유저들의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고, "갓패치 인정한다", "벼랑 끝에서 살아나네, 최고의 업뎃이네요" 등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 220뽑 실화인가??

유저들이 가장 좋아할 이벤트는 무엇일까? 룰렛? 블루마블? 아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이벤트는 유저들에게 '고등급 트레이너를 영입할 수 있는 뽑기 이벤트'라고 생각한다.

2020 시즌 개막 기념으로 진행했던 '겜프야의 무료 뽑기 200회 이벤트에서는 10+1 뽑기권을 무려 20장이나 지급했다. 100회가 넘는 뽑기 이벤트인 만큼 유저들의 반응도 뜨거워서 "캬~ 믿고있었다구", "출석 이벤트는 역대급이네요. 감사합니다!" 등 호평과 칭찬이 가득했다. 앞으로도 '겜프야'를 예의주시하면 이런 혜자 이벤트가 또 오지 않을까?

★ '갤럭시 컵' 출범

갤럭시 컵은 크게 2단계로 나눠진다. 1단계: 참가 신청, 2단계: 대회 기간이다. 참가 신청 단계에서는 갤럭시 컵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총 5명의 선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게임 플레이를 통해 포인트 획득 방법이 공개되어 미리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다. 2단계인 대회 기간은 7일 동안 진행되며 실력이 비슷한 구단끼리 매칭되어 경기를 치르는 방식이다. 경기를 통해 획득한 포인트 기록에 따라 보상을 획득하기 때문에 선수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키포인트이다. 대회 순위에 따라 갤럭시 코인이 지급되며, 코인 상점에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으니 꼭 참가하도록 하자.

핫 데뷔!! 야구돌 등장!!

야구와 아이돌의 만남! 야구돌 데뷔! 2020 시즌 서막을 알리는 〈샤이닝 앤젤스〉 야구돌이 겜프야의 신규 트레이너로서 핫데뷔를 알렸다. 트레이너들이 유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매력뿜뿜 4명의 트레이너를 바로 만나보자.

★ 리더이자 메인보컬, 미카엘라 중견수 포지션

굉장히 어른스럽고, 팀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 비주얼 담당으로 아름다운 미모와 핸드 마이크가 트레이드 마크이며, 천사처럼 하늘하늘한 의상으로 청순미 뿜뿜! 하지만 게임 내에선 레전드 등급으로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반전 매력까지 갖추고 있다.

★ 귀여운 막둥이이자 서브보컬, 소피 중견수 포지션

〈샤이닝 앤젤스〉의 리더이자 메인보컬인 미카엘라를 동경하고 있다. 막내답게 깜찍한 헤어스타일과 앳된 의상으로 귀여운 매력을 강조한다. 미카엘라를 동경하여 그런지 몰라도 같은 포지션인 중견수를 맡고 있으며, 레전드보다 한 단계 낮은 슈퍼스타 등급에 속한다.

★ 메인 댄서, 레이첼 3루수 포지션

무대에서 요염하고 강렬한 퍼포먼스로 걸크러쉬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레이첼의 강렬한 퍼포먼스는 스틸 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높게 묶은 포니테일과 블랙 앤 화이트 의상이 시크하고 도도한 매력을 강조한다. 눈 밑의 점 또한 레이첼만의 매력을 더한다. 미카엘라와 같이 레전드 등급으로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한다.

★ 래퍼, 모니크 포수

평소 성격은 무뚝뚝하고 수줍음이 많다. 하지만 무대에선 거친 독설을 내뱉는다고 하는 데... 실제로 게임 내 캐릭터 대기 모션을 잘 들어보면 삐~삐~(욕설 경고음) 소리가 난무한다. 레이첼과 같이 블랙 앤 화이트로 스타일링했지만, 래퍼답게 힙합의 느낌을 좀 더 살렸다. 스냅백, 크롭탑 그리고 언밸런스한 하의로 힙한 매력이 물씬난다. 소피와 같이 레전드 등급보다 낮은 슈퍼스타 등급에 속한다.

글. 최동민 기자 / minodm92@

꽃보다 우리!

컴투스 꽃꽂이 동호회 '꽃us'

지난해 여름 어느 날, 컴투스에 꽃꽂이 동호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업계 특성상 모니터와 모바일 기기들을 붙잡고 사는 우리 회사에서 향기로운 꽃 생활을 한다니, 무척 호기심이 생겼다. 어느덧 활동 1년 차를 향해가는 컴투스 꽃꽂이 동호회, '꽃us'를 소개한다.

향기를 느끼고 싶은 자, '꽃us'로 오라

현재 동호회 회장을 맡은 BB사업실의 지서연 대리는 '꽃us'를 만든 창립멤버다. 원래부터 꽃을 좋아해 취미생활로 1년 정도 배우고 있었는데, 사우들이 꽃꽂이 사진들을 보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여기저기서 회사에 동호회가 있으면 같이 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들렸고, 팀 동료들과 함께 동호회를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지서연(회장): "꽃꽂이는 개인적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 가격 부담도 있고, 수업을 들으러 플라워 샵에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수업을 진행하면 그동안 여건이 어려워 못하신 사우분들도 쉽게 접하실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죠."

출시 직후, 인기 차트 '급상승'

동호회를 만들자마자 가입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갓 입사한 막내부터 본부장까지 성별이나 직책을 떠나, 많은 사우들이 꽃꽂이의 매력을 느끼고자 '꽃us'에 가입 신청서를 냈다. 어찌나 많은 호응이 있었는지 꽃꽂이 활동에 필요한 공간적, 물리적 한계 때문에 회원을 받지 못할 정도였다.

지서연(회장): 꽃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데, 이 꽃을 실제로 만지고 다루는 것에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신 것 같아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난 뒤에도 꽃 향을 맡으며 꽃꽂이를 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온전히 내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게다가 꽃다발, 꽃바구니 등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나면 성취감도 들고, 이 작품을 주위에 선물하면서 또 다른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나 혼자만의 힐링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꽃꽂이의 매력이죠.

'힐링'하면서 '작품'도 만들자

'꽃us'는 단순하게 회원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다. 꽃을 다루며 힐링도 하지만, 한 달에 4번 열리는 동호회 활동 중 각자 원하는 시간에 전문 강사와 함께 계절과 생활 이슈에 맞춘 꽃꽂이를 배우고 작품을 만든다. 물론 동호회 활동이 근무시간 이후 저녁에 진행되기에 활동 중심은 꽃을 통한 심신 안정(?), 즉 '힐링'이지만 동호회 활동을 마치고 어여쁜 꽃들과 함께하는 귀갓길만큼 행복한 게 또 있을까 싶다.

한다미 대표(초청 강사): 매장에서 진행하는 수업과는 조금 다르게, 동호회 특성에 맞춰서 '힐링'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피곤하고 지친 분들에게 어려운 이론보다는 잠깐이라도 꽃의 향기를 맡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해드리고 싶어요.

손재주가 없어도 자신감 있게 'FLEX'

꽃을 꽂거나 만지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성향이 조금은 보인다고 한다.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또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독특한 작품을 만든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건 간에 누군가에게 평가 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만드는 스스로가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 꽃꽂이의 큰 매력이다.

한다미 대표(초청 강사): 각자의 개성이 있어서 제 입장에서도 매번 수업이 참 재미있어요. 잘 만들었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는 나름의 취향에 따라서 만드는 게 즐거우니까요. 물론 꽃꽂이 자체가 색감을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고 배치하는 게 중요해서, 손재주가 있으면 더 잘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컴투스 분들은 똥손이라고 하시면서도 금손처럼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두드리자, '꽃us'의 문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동호회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회원들의 마음은 언제나 꽃밭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모두가 건강하게 다시 만나 웃으며 꽃향기를 마음껏 즐기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며, 소개를 마친다.

★ 꽃 관리하기 TIP ★

꽃 관리는 쉽게 말하면 과일과 같다.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늘한 곳에서 물을 자주 갈아주고, 최대한 깨끗한 물 상태를 유지해야 오래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글. 장순영 기자 / jangsy@

모여봐요 동물의 숲

놀러 오고, 튀어나오고, 이번엔 모여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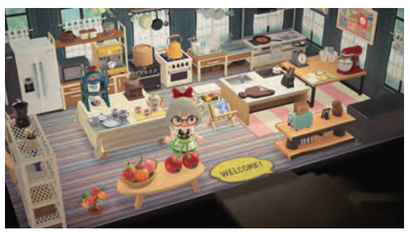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닌텐도에서 개발한 '동물의 숲'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이식작 및 외전 제외)이며,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된 첫 번째 작품이다. 전작인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NDS),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3DS)은 모두 1,000만 장 이상 판매되었으며, 이번 작품은 3월 20일 출시 후 11일 동안 총 1,177만장이 판매되어 순식간에 전작들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과연 어떤 게임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

심플한 게임의 목적

게임의 목적은 간단하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며 마을을 꾸미고 발전시키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 이전 작품들이 외딴 마을에 이사를 가서 생활을 하거나 본인이 촌장이 되어 마을을 부흥시키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이주하여 생활하는 '무인도 이주 패키지'의 참가자 자격으로 느긋한 섬 생활을 즐기는 것이다.

즐거운 마이 홈 꾸미기

처음에는 텐트 생활을 통해 무인도의 매력을 잔뜩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텐트를 집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악덕 대출 업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무담보, 무이자, 무기한'으로 돈을 빌려주는 천사 너굴님에게 대출을 받고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한다. 집의 크기를 늘리면서 다양한 아이템으로 '집꾸미기'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데, 약 4,500종이나 되는 수많은 가구 및 잡화들로 마이 홈을 꾸미며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

주민들과 커뮤니티를 꾸리자

섬에는 플레이어 외에 최대 10명의 각기 다른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며, 이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전작부터 계속 추가되어 이제는 400명이 넘는 다양한 주민들이 존재하며 주민들마다 각기 가진 외모, 성격은 물론 취미와 선호하는 스타일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이다. 자신이 원하는 주민이 섬에 없을 경우 '아미보 카드'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특정 주민을 섬으로 영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양한 컬렉터 꿈꾸기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기본적으로 엔딩이 없기 때문에 느긋한 플레이를 지향하지만 곤충, 물고기, 화석, 미술품 등 박물관을 전시하는 여러 가지 수집 요소가 있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작품은 전작들과는 다르게 '너굴 마일리지'라는 시스템의 도입으로 장/단기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자칫 밋밋해질 수 있는 플레이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현실과 함께 돌아가는 시계추

또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언제 플레이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게임이기도 하다. 계절별로 다르게 존재하는 요소, 낮과 밤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 특정 기간에만 펼쳐지는 이벤트 등 1년 내내 할 거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최소 1년은 플레이해야 모든 요소를 다 즐길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작품에는 전작에서는 없었던 '북반구/남반구' 시스템을 도입하여 같은 시간대에서도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부여해 조금 더 다양한 느낌을 주고 있다.

나만의 개성을 갖자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디자인에는 자신이 없지만 조금 더 다양한 디자인의 아이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이 디자인 시스템도 존재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의상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으며, 최근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실제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는 패션쇼를 여는 대신 공식적으로 마이 디자인을 통해 시즌 의상을 배포하기도 했다.

우리 섬에 놀러 오세요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온라인 게임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플레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임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진 나의 섬에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섬에 놀러 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다른 게임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정답이 없어서 더 즐거운 세계

지면에 다 담기 모자랄 정도로 다양한 요소가 있는 게임이지만, 이 게임의 장점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내 성향에 맞는 플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게임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정답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고 느긋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무언가 목표를 세워 도전하는 방식 등 자신의 플레이 패턴에 맞게 게임을 즐기면 된다. 단지 그것뿐이다. 누군가와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게임 테마에 맞게 유유자적한 무인도 생활을 즐기면 된다. 아직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시작하지 않은 플레이어라면 동물 친구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무인도 생활을 즐겨보자.

글. 최연식 기자 / darkriss@

MUSTHAVE

낚시의 신 (Ace Fishing)

[개발사 / 퍼블리셔] 컴투스
[장르] 스포츠
[키워드] 3D, 초 간단 원터치 플레이, 전 세계 낚시인과 즐기는 짜릿한 손맛!
[추천] 현장감 넘치는 낚시를 언제, 어디서든 즐기고 싶은 유저,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 싶은 유저
[소개] 세계 곳곳의 낚시터에서 대어를 낚아보자! 지친 하루의 꿀맛과 같은 휴식을 낚시의 신으로!
낚시의 신은 하와이, 아마존, 지중해 등 세계 유명 낚시터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릴을 감거나 푸는 조작과 함께 잡아채기, 파워 스킬등을 통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물고기를 잡아
마치 실제로 낚시를 하는 듯한 짜릿한 스릴과 손맛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전세계 유저들 함께 즐기는 1vs1, 길드전 등 경쟁 콘텐츠로 보다 다양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구성] 전세계 유저들과 즐기는 경쟁 콘텐츠와 길드 콘텐츠
[인기 콘텐츠] 1vs1, 월척전, 포인트전, 어신전 등 다수
[리뷰] "손 맛과 도전감이 최상입니다.", "너무나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손맛을 느껴요.
출조 같이 떠나요. 날 따라와~~~"
[초보 꿀팁] 낚시의 핵심은! 대어를 낚는 것이죠!

이현주 님의 주머니 속 게임은?

'이 코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바일게임을 즐길까?'하는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매월 새로운 유저의 주머니 속 게임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면서 나와의 성향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회사에서 웹퍼블리셔로 일하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부터 다양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요즘엔 어떤 게임을 즐기고 있나요?
요즘 주변 지인들이 많이 하는 'LoL'이나 '배틀그라운드'같은 PC 게임들이 저는 어려워서 같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동 시간이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는데요. '꿈의 집', '맞고', '낚시의 신', '라이즈 오브 킹덤즈'를 즐겨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하시는 데, 게임을 시작할 때 어떤 점을 보고 고르시나요?
주로 친구들이나 마켓에서 추천하는 게임을 시도해보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템플런' 같은 런게임이나 '포코팡' 같은 퍼즐게임을 즐겼는데, 요즘은 '꿈의 집'과 같이 스토리가 있는 퍼즐 게임을 많이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오브 킹덤즈'는 시간마다 채집도 해야 하고, 혹시 자는 사이에 공격받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되더라고요. 게임을 하는 동안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들을 해보다가, 요즘은 부담이 적은 '낚시의 신' 같은 게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퍼즐게임을 많이 플레이하신다고 했는데요. 인상적인 스토리가 있다면요?
요즘 즐기고 있는 '꿈의 집'은 집사로 일하던 오스틴이 부모님의 집에 돌아와서 집을 수리하고 꾸미는 게임이에요. 오스틴은 부모님 집이 이렇게 큰 금수저인데 왜 남의 집에서 집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걸까?'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스토리 게임은 '위 베어 베어스 더 퍼즐'이에요. 열심히 텐트를 치고 꾸몄는데 주인공들이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가 텐트는 물론이고 공원을 다 태워버려서, 공원 파손에 대한 배상과 캠핑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스토리를 접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순간 진심으로 화가 났던 기억이 있네요.

정말 화가 많이 나셨겠네요. 다른 게임들은 무엇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이 재밌었나요?
네, 원래 꾸미는 게임을 좋아해요. '꿈의 집'은 뭔가 좀 외국 감성이라 장식 요소들이 특별히 예쁘지는 않지만, 밸런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 등 시즌 별로 새로운 테마가 나와서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낚시의 신'은 처음 앱을 실행할 때마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호텔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등 정말 여행 가는 것 같이 설레는 문구가 나와서 좋아요. 그리고 등급이 높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을 때의 성취감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맞고'도 큰 점수로 상대를 이겼을 때의 성취감 때문에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도 재미있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글. 변기오 기자 / kiohbyun@

빛의 계승자

HEIR OF LIGHT

© 2019 FUNFLOW. All Rights Reserved. Published by GAMEVIL Inc.

무의식과 자연의 만남

팀보타63

'미디어아트'하면 백남준의 비디오아트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렇다면 미디어아트의 현 위치는 어디일까? 역설적이게도, 최근에는 미디어아트를 통해 자연물을 나타내는 것이 트렌드다. 기자는 그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물 중 하나인 '팀보타63: 보타닉 이펙트(이하 팀보타63)' 전시회를 다녀왔다.

팀보타63: 보타닉 이펙트

캄캄한 바다, 새빨간 열매, 눈이 내려앉은 나무, 그리고 각자의 색을 뿜어내는 꽃. 자연 속을 거닐다 보면 무의식의 세계에 빠져들곤 한다. '팀보타63: 보타닉 이펙트' 전시는 자연물을 미디어아트와 음악, 오브제, 홀로그램, 시, 그리고 빛으로 재구성하여 일상 속에서 잊고 살던 무의식의 존재를 상기시킨다.

팀보타 숲

팀보타 숲에서는 자연 속으로 처음 들어가던 때의 설렘을 상기시킨다. 숲이 온통 푸른 나무와 오묘한 꽃으로 뒤덮여 있다. 숲을 걷다 보면 정신이 맑아진다. 어떠한 잡생각을 품고 들어갔든 상관없다. 이제 자연 속에서 무의식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

보라 코끼리

심해를 표현하고 있는 이 방에 왜 코끼리라는 이름이 붙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 심해는 깊다는 점에서 무의식을 닮아 있다. 무거운 돌에 묶어 둔 채 깊이 가라앉혀 놓았던 무의식을 용기 내어 꺼내 보고 마주할 시간을 준다.

흙

흙은 남들이 볼 수 없게 덮어 둘 수 있다는 점에서 무의식을 닮았다. 다른 이가 알지 못하게 흙으로 덮어 두고 떠나가지만, 그 안에서 기쁨과 슬픔 등 다양한 감정과 기억이 탄생한다. 마치 어두운 흙 속에서 새싹이 트는 것처럼!

전시회 감상하기

'팀보타63' 전시회는 7월 5일까지 진행된다.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겠지만, 전시는 63빌딩 60층 63아트 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주제가 너무 철학적이라서 어려웠다는 것이다. 예술적 감각이나 철학적 지식을 갖춘 친구와 함께 간다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며...

미디어아트의 시초인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작품이 주는 감상은 "이런 예술 분야도 있구나"하는 이질감뿐이었다. 하지만 기자가 전시회에서 본 미디어아트는 자연과 최대한 닮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다. 바닷속 심해에 있는 것 같은 고요함과 숲속을 걷는 것 같은 평화로움. 미디어아트를 활용함으로써, 자연의 일부를 잘라 가져오지 않고서도 충분히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최근에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홀로그램으로 서커스를 대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자연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미디어아트는 이제 자연을 지키면서도 인간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팀보타63: 보타닉 이펙트

화려하고 웅장한 색채의 숲속으로 들어가 빛과 색,
3D 뉴미디어아트의 향연 속에서 오감으로 교감하는 전시

★ **장소:** 한화 63빌딩 63아트홀
★ **기간:** 2019.12.14-2020.07.05
★ **입장료:** 20,000원(대인)

글. 정새봄 기자 / comet15@

마음 가는 대로 그려보자

3D 펜 (feat. 사나고 펜)

선을 긋던 펜으로 면을 만들고, 그 면을 모아 입체 도형을 그릴 수 있다면 어떨까? 기자는 그림에 소질은 없지만 무언가 그리거나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해보고 싶었던 3D 펜을 구매하여 사용해 본 후기를 기사로 써보고자 한다.

누가 3D 펜을 생각했을까?

처음 상용화된 3D펜은 워블웍스의 '쓰리두들러(3Doodler)'다. 장난감 개발자 맥스웰 보그는 피더 딜워스와 함께 2010년 워블웍스를 세우고 3D펜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가지고 나온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3D프린터가 물건을 그리는 방식을 펜으로 옮기자는 것. 워블웍스는 사용하던 3D 프린터가 오작동해 나온 결과물을 간단하게 덧붙여서 수정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3D 펜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워블웍스는 단순하면서도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고 펜으로 그림을 그리듯 누구든지 3D 펜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싶었기에, 이름도 3D와 Doodler(낙서하는 사람)을 합쳐 3두들러라고 지었다고 한다.

3D 펜의 원리

3D 펜은 열을 가하면 물렁물렁해지는 소재를 재료로 사용하는 '열 가소성 수지(FDM)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재료인 필라멘트가 두꺼운 끈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샤프심처럼 쉽게 끼워 사용할 수 있다. 펜에 들어간 필라멘트가 펜촉 부분의 열처리 장치를 통과하면 강한 점성을 띠게 되어 굳기 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3D 펜의 장점!

★ **휴대성** 3D 펜은 3D 프린터에 비해 가볍고 부피가 작아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용이하다. 또한 별도로 컴퓨터 등의 전자 기기를 연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좁은 공간이나 외부에서도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 **간편한 사용**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크로키 하듯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3D 펜의 가장 큰 큰 장점이다.
★ **다양한 종류** 3D 펜은 제품군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저온 3D 펜 제품도 있다. 가족이 모이는 행사에 어린이용 3D 펜 제품을 들고 간다면 최고의 인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의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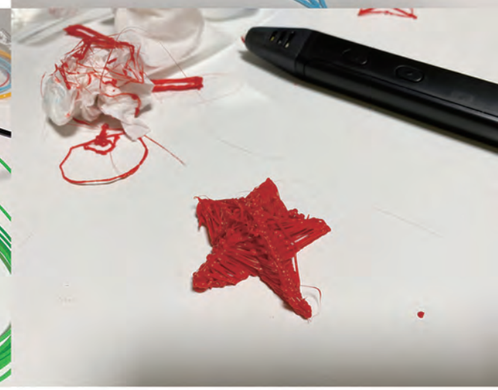
★ 3D 프린터처럼 정교한 작업을 하려면 따로 도면을 만들어 평면 위에 모양을 만든 뒤 다시 이어 붙이기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 필라멘트를 가열하는 펜촉 부분이 뜨겁게 달궈지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하며 작업해야 한다. 작업 시 가열 과정에서 필라멘트가 타는 냄새와 함께 소량의 연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건강을 위해 환기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다.

작업 난이도는?

평소 유튜브에서 3D 펜으로 작품을 만드는 영상들을 자주 봐온 탓인지, 알 수 없는 근자감이 기자의 손을 자신 있게 움직였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손이 움직여주지 않아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며 극도의 좌절감을 맛보았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초보자 단계를 벗어나진 못했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간 장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3D 세상으로의 진화

3D 프린터가 프린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커다란 가능성을 연 것처럼, 3D 펜도 모태인 3D 프린터보다 큰 잠재력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3D 펜은 평면 위에 그림을 그리던 펜의 영역에서 우리가 사는 3차원 세상으로 넓혔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3D 펜은 어떤 미래를 그려 갈까? 그건 전적으로 3D 펜을 쥔 우리 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3D가 가져올 색다른 세상을 기대하며 소개를 마친다.



글. 심규호 기자 / simkh@

봄철 맛이, 아스파라거스 활용법!

재료 : 아스파라거스, 밀가루 또는 튀김가루, 빵가루, 계란, 식용유

봄나물을 보며 봄을 느끼듯, 서구권에서는 아스파라거스가 나오면 봄이 왔다고 느낀다는 말이 있다. 아스파라거스는 아스파라긴산과 아스파르트산을 비롯해 비타민 C, B1, B2, 칼슘, 인, 칼륨 등 무기질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비싼 가격으로 인해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채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길이 막힌 아스파라거스를 강원도청에서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기 시작했고, 판매를 시작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매진되는 등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데쳐서 파스타에 곁들여도, 단순하게 구워서 육류에 곁들이기만 해도 맛난 아스파라거스이지만, 오늘은 맥주를 무한정 부르는 튀김 요리를 소개하겠다.

아스파라거스 요리 과정!

1 아스파라거스를 깨끗이 씻는다. 아스파라거스는 소형보다는 중(지름 1cm 내외)이나 대(지름 1.5~2cm) 사이즈를 추천한다. 기자가 사용한 아스파라거스는 대 사이즈다.

2 줄기 아랫부분은 자칫 질길 수 있으니 감자칼(필러)로 껍질을 벗긴다. 보관한 지 시일이 조금 지난 아스파라거스라면 추가로 밑동을 1cm 정도 잘라내는 것이 좋다.

3 적당한 크기로 자른 아스파라거스를 밀가루 또는 튀김가루에 굴려준다.

4 튀김가루가 너무 뭉쳐 있지 않도록 살짝 털어낸 후, 계란물에 적신다.

5 계란 물에 적신 아스파라거스에 빵가루를 골고루 묻힌다.

6 프라이팬에 기름을 적당히 붓고 예열한다. 기름을 최대한 적게 쓰기 위해 프라이팬을 비스듬히 기울여 기름이 한쪽에 고이게 한 후 아스파라거스를 굴려가며 튀긴다.

7 겉은 바삭, 속은 달큰한 즙이 팡팡 터지는 아스파라거스 튀김 완성!

글. 전혜선 기자 / jhyesun@

배틀그라운드 용어 편

최대 100명의 플레이어가 전장 내 원하는 지역에 낙하산을 타고 착륙, 다양한 무기와 전략을 이용해 최후의 1인 혹은 1팀이 되기 위해 경쟁하는 게임으로 정식 명칭은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지만 흔히 '배틀그라운드' 혹은 '배그'라고 부른다. 출시된 지 13주 만에 매출 1억 달러 기록, 역대 비디오게임 판매량 순위 4위(6,500만 장)에 랭크된 '배틀그라운드'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뚝배기 (헬멧)

머리에 사용하는 방어구,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된 '참고로 뚝배기=머리입니다'라는 밈*으로 인해 정착된 별칭이다. 단순하게 헬멧의 외관이 뚝배기를 뒤집어쓴 것 같이 보여 뚝배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 밈(meme): 인터넷상에 재미난 말을 적어 넣어서 다시 포스팅 한 그림이나 사진

OO 메타

특정 상황을 빗댄 플레이어 혹은 전략을 가리키는 말로, 교전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뜻의 '간디 메타', 자기장의 위치를 예측해 건물을 선점하는 '부동산 메타', 적을 찾아 적극적으로 교전하는 '여포 메타', 강 혹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적과의 교전을 최대한 피하는 '용왕 메타' 같은 용어가 있다.

그로자 (Groza)

돌격 소총인 'Groza'를 뜻한다. 보급 상자에서만 획득할 수 있으며 7.62mm 탄을 사용한다. 수직 손잡이가 기본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소음기 사용 시 수직 손잡이가 사라진다. 러시아어로 천둥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천둥'이라고도 불린다.

에땁 (AWM)

저격 소총인 'AWM'을 뜻한다. 보급 상자에서만 획득할 수 있으며, 전용 탄약인 '.300 매그넘'도 보급 상자에서만 나온다. 헤드샷 기준으로 3레벨 헬멧도 한 발에 처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카구팔 (Kar98K)

저격 소총인 'Kar98K'를 뜻한다. 월드 드롭 무기이며, 헤드샷 기준으로 2레벨 헬멧까지 1발로 처치할 수 있다. 해당 무기 사용 시 재미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잼구팔'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테팔 (프라이팬)

조리 기구 및 주방 가전 제조 회사로 유명한 '테팔'이 연상되어 붙은 별칭. 방탄 효과가 있어 뒤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막아 주기도 한다.

구상 (구급상자)

체력을 75%까지 회복시키는 아이템으로 남은 25%의 체력은 의료용 키트 혹은 부스팅 아이템으로 회복할 수 있다.

삼토바이 (오토바이&사이드카)

최대 3인 탑승 가능한 삼륜 차량으로,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낙사 사고가 잦다. 사이드카가 존재해 좌우 균형이 맞지 않고, 작은 요철만 있어도 운전이 어려워진다. 해당 차량 탑승 중 재미있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 '잼토바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고블린 (보물고블린, 황금고블린, 쿠팡맨)

아이템을 많이 보유한 적을 가리키며, 차량을 끌고 와서 죽는 적은 '쿠팡맨'이라고도 한다.

고라니 (뚜벅이)

차량을 피해 뛰어다니는 적 혹은 차량에 치여 죽은 적을 가리키는 용어다.

글. 한정욱 기자 / salradin@

복면겜왕

'복면겜왕'은 매월 새로운 '갓겜'을 선정하여 감동과 여운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베일에 가려진 게임을 단계별로 추측해서 정답을 맞혀 보세요.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01

이 게임은 2007년에 첫 발매된 오래된 시리즈 중 최신작으로 2020년 3월에 발매했습니다.

02

출시 열흘 만에 천만 장이 판매될 정도로 큰 인기가 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래픽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03

시작할 때 튜토리얼 수준으로 게임의 방향성만을 제시해 주며
엔딩이라는 목적 없이 스스로의 생활을 즐기는 게임입니다.

작은 섬에서 곤충이나 물고기 등을 잡아 수집하거나 나무, 철광석, 돌 등을
채집해 다양한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집을 꾸미거나 확장할 수 있으며,
가구는 상점에서 사거나 채집한 아이템으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집을 완전히 확장하면 섬의 지형까지도 변경할 수 있어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섬을 만들 수 있습니다.

04

섬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성격의 동물 주민들이 이사를 오갑니다.
이웃 주민들과 선물을 주고받거나 대화를 즐기며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친구의 섬으로 가서 친구가 꾸며 놓은 섬이나 집을 구경하거나,
자신의 섬으로 초대해 꾸며 놓은 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05

닌텐도 스위치 게임입니다.

큰 인기 때문에 기기 물량 부족으로 닌텐도 대란을 일으켜 이슈가 되었습니다.

기간 : 2020년 6월 16일까지
메일 주소 : GCNEWS@gamevilcom2us.com(주소, 이름, 연락처를 함께 적어 주세요.)

5월호 정답 : 바인딩 오브 아이작 (The binging of ISSAC, 한글명 : 아이작의 번제) / 5월호 당첨자 : 김경희(서울시 서초구), 노민혁(경기도 김포시), 안기현(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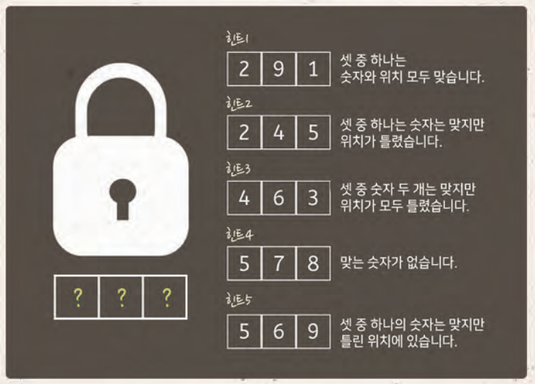
글. 한상수 기자 / hsss3@

Quiz

뇌섹인이 푸는 센스 퀴즈
<샤이닝 앤젤스>의 락커를 열어주세요!

매력적인 비주얼과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마친 <샤이닝 앤젤스>.

야구돌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갤럭시컵2020'의 시구자로 선정되었다.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샤이닝 앤젤스>. 이제 멋지게 시구만 하면 된다!
그런데 갑자기 시구 이벤트을 위해 특별 제작한 특수 의상을 보관한 비밀번호를 적어 둔 쪽지가 사라졌다?
남은 것은 혹시 락커에 붙혀 둔 아래의 힌트뿐... 락커를 열어 <샤이닝 앤젤스>의 성공적인 시구를 도와주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 공개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기간 : 2020년 6월 16일까지
메일 주소 : gcnews@gamevilcom2us.com(주소, 이름, 연락처를 함께 적어주세요.)

5월호 퀴즈 : '캐롤라인의 사촌 여동생을 납치한 범인을 찾아주세요!'
정답 : 2번
종이를 거꾸로 보면 문자가 읽힌다. He sells oils. LEE SOO IL

HE'SELLS'OILS 'LEE'SOO'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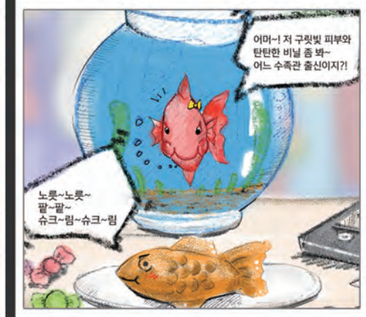
당첨자 : 오준휘(경기도 군포시), 김보현(경기도 고양시), 박세현(서울시 종로구)

글. 강현진 기자 / better2day@

5월호 당첨자 발표 축하드립니다~!

고승모 (게임빌 폴리싱팀)

김순필 (컴투스 전략홍보팀)



WE WIT

당신의 무한한 상상력을 기대합니다.
말풍선에 위트있는 멘트를 넣어
사진 촬영 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WEWIT 삽화는 사우분들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멋진 솜씨를 뽐낼 금손 사우들께서는 언제든지
편집부에 문의 주세요~!
(이 코너는 임직원만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 2020년 6월 16일까지
메일 :gcnews@gamevilcom2us.com
회사, 소속, 이름, 연락처를 함께 적어주세요

별이 되어라!

Congrats

Welcome Welcome

글로벌 No. 1 모바일게임사를 위해 함께 하게 되신
여러분 모두 입사를 축하합니다!

★

컴투스

개발운영실 박석윤 차석
SW사업본부 박연주 사우
제작1본부 김성일 책임
제작3본부 강하연 선임
SC사업본부 박소영 과장
BB사업실 신선미 대리
NS사업실 윤지혜 사우
개발운영실 이창진 사우
제작2본부 민경무 선임
SC사업본부 이수연 과장
제작1본부 서성원 차석
경영관리본부 조화목 과장

GCP

플랫폼1실 이동석 선임

Gamevil Com2us USA

Director of Marketing 1 Hyungeun Na
Technical Director Michael Nalbandian

TWO IN MEDIA 157호 2020년 6월호

게임빌, '게임빌프로야구 2020 슈퍼스타즈' 시즌 대개막

게임빌(대표 송병준)의 '게임빌프로야구 2020 슈퍼스타즈(이하 겜프야)'가 2020 새 시즌 개막을 맞아 역대급 보상과 신규 대회 모드 '갤럭시 컵'을 출범했다. 기존 유저와 신규 유저 모두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접속 보상 '다이아 2020개', 레전드 트레이너 영입권, 110장 트레이너 영입권 등 풍성한 보상을 실시했다. 또한, 새롭게 열린 '갤럭시 컵'은 유저 간 전략적 경쟁과 차등 보상, 갤럭시 코인 상점 등 색다른 재미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게임 메인타이틀 및 로비, 구장 전광판 등 다양한 요소를 리뉴얼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컴투스, 유망 게임사 티키타카스튜디오 인수

컴투스(대표 송병준)가 올해도 적극적 M&A를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컴투스는 유망 신생 게임사 티키타카스튜디오(대표 유희상)의 지분 57.5%를 인수했다고 7일 밝혔다. 티키타카스튜디오는 독특한 플레이 방식에 RPG와 디펜스 게임 요소를 접목한 '아르카나 택틱스'로 지난해 '새로운 경기 게임 오디션'에서 3위를 수상하는 등 우수한 개발력을 인정받은 유망 개발사다. 컴투스는 짧은 기간 동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독특한 게임 구성 방식을 구현하고, 긴밀한 시장 대응을 통해 발 빠른 서비스 역량을 보여준 티키타카스튜디오의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게 판단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게임빌, '빛의 계승자' 대규모 글로벌 업데이트

게임빌은 다크 판타지 세계관으로 국내외 마니아층을 거느리고 있는 수집형 RPG, '빛의 계승자'의 대규모 글로벌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현존 최고 스테이지인 신전 구역을 대폭 확장했으며 새로운 서번트와 아바타 등 신규 콘텐츠가 대거 등장했다. 또한 고성장 서번트와 저성장 서번트의 능력치를 연동시키는 '인연 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여 색다른 전략적 재미를 더했다. 업데이트에서 신규 시스템을 선보이는 등 콘텐츠를 확대한 빛의 계승자는 더욱 두터운 팬 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컴투스, '사커스피리츠' 6주년 기념 온라인 유저 간담회 실시

컴투스가 지난 16일, 인기 축구 카드 RPG 사커스피리츠의 6주년을 기념해 온라인 유저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컴투스 및 빅볼 관계자, 인기 게임 유튜버 김성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말 예정된 6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내용이 공개됐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선수 획득 구조 및 육성 시스템 개편과 협동기, 결전기 콘텐츠 신규 도입 등이 예정돼 있어 유저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켰다. 컴투스는 간담회에 참여한 유저들을 위해 게임 재화 등의 선물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퀴즈 이벤트와 Q&A 세션 등을 통해 유저들과의 소통 기회를 가졌다.

World Game Now 는 글로벌 게임 시장의 소식을 다루고 최신 게임의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게임스컴(gamescom) 2020, 온라인 개최 일자 확정

게임스컴 2020이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확정됐다. 세계 3대 게임 행사로 꼽히는 게임스컴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해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로 했다. 'The Heart Of Gaming'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티켓을 구매할 필요 없이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 3일 동안 MC 제프 키글리가 주최하는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 쇼케이스와 신작 인디게임들을 만나보는 게임스컴: 어썸 인디즈 쇼케이스 및 다양한 개발자 인터뷰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VR 시대로 가는 길목? '하프라이프: 알릭스'

지난 3월, 13년 만에 우리의 곁으로 돌아온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출시 직후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메타크리틱에서 평점 93점을 기록했다. VR 전용으로 나와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그 우려를 깨끗하게 날려버린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VR 기기를 사용하는 유저가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까지 발표되며 명작의 위엄을 입증했다. 제작사 밸브는 스팀에서 VR 기기를 연결한 유저가 작년 겨울 대비 약 3배 증가한 총 270만 개라고 밝혔다. 현재 스팀 전체 이용자 중 VR 이용자는 약 19%에 불과하지만, 이는 다가올 게임 트렌드가 VR로 변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아이언맨 VR', 7월 출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시가 연기된 바 있는 마블의 '아이언맨 VR'이 7월 출시된다는 소식이다. 지난 13일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오는 7월 3일, '아이언맨 VR'이 PS4/PSVR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저들은 게임 속에서 토니 스타크의 하늘과 삶을 탐험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아이언맨 VR'에 대해 보다 많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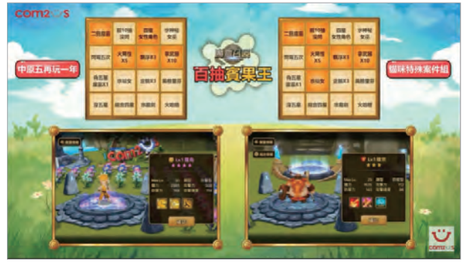
Pioneers 는 게임빌-컴투스 해외 지사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양사가 모바일게임 비전을 세계 시장에 알리기 위해 수 많은 국가를 개척하고 선전하는 활약상을 조명합니다.

GAMEVIL COM2US THAILAND '서머너즈 워' 마스터 타일랜드 개최

게임빌-컴투스 태국지사에서 '서머너즈 워' 마스터 타일랜드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이벤트는 4명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지원한 유저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팀을 꾸려 코칭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서머너즈 워' 6주년을 맞아 새로게임을 시작한 유저와 복귀 유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머너즈 워' 마스터 타일랜드는 5월 유저 모집 기간을 거쳐 6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GAMEVIL COM2US EUROPE '서머너즈 워' 6주년, 유쾌한 LCC(low cost cosplay) 캠페인

게임빌-컴투스 유럽지사는 '서머너즈 워' 6주년을 맞아 인플루언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독일의 가장 유명한 유튜브 스타 중 한 명인 '줄리엔 밤'과 그의 친구 '준'이 함께 '서머너즈 워' LCC 코스프레에 도전했으며, 단 1유로를 사용해 빛속성 아크엔젤 '아르타미엘'과 풍속성 펭귄 '마브'를 완벽하게 재현 했다. 이 영상은 게재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조회수 5만을 기록했으며, 일주일 만에 조회수 40만을 달성했다.



GAMEVIL COM2US TAIWAN 유저와 함께하는 '서머너즈 워' 6주년 빙고 이벤트!

게임빌-컴투스 대만지사는 '서머너즈 워' 6주년을 기념한 신비 100장 선물 이벤트에 맞추어 '100번 뽑기 빙고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이벤트는 사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대만과 홍콩 유저 각각 4명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 형식으로 방송됐다. 유저들은 스트리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6주년 기념으로 받은 신비의 소환서 100장으로 뽑기를 하고, 뽑기에서 나온 소환수로 빙고판의 빙고를 완성하며 풍성한 보상을 받았다. 시청자들 또한 어떤 유저가 더 많은 빙고를 완성할지 예상하는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EPILOGUE

게임빌, 컴투스, 게임빌컴투스플랫폼 임직원들이 기자로 참여했습니다.

김선지 기자 6-7p Cover Story '셋과 함께' 폴리포스탐 '최용귀' 차석 편

사보 기자단 활동을 통해, 평소 뵙기 힘들었던 다른 부서 직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최철 기자 8-9p Special 자연에 빠져드는 '힐링 캠핑' 이야기

사보에 저의 취미생활과 좋은 캠핑 장소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6월 한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빈태희 기자 10-11p Field 10년을 넘어 20년을 향해 '순항 중' 센트럴팀 아이모(IMO)'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코로나 종식까지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사보 진행하신 사우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지영 기자 12-14p New Face 게임빌/게임빌컴투스플랫폼 뉴페이스! 매력 넘치는 F4 특집!

좋은 분들과 함께 사보의 한 코너를 담당할 수 있어서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좋은 경험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희원 기자 16-17p MKT Contact '서머너즈 워' 6주년, 글로벌 소원사와 즐기는 'UCC 콘테스트'

매월 전달받는 사보 기사를 작성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이한빈 기자 18-19p Job&Gates 원화가 '이유성' 책임 편

QA를 담당하면서 정말 많은 부서와 소통을 진행하는데, 요번 기자단 참여로 소통이 없었던 그래픽 디자이너 분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안현주 기자 20-21p Game Focus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 FGT

보통 출근해서 업무로 정신없이 하루를 다 보냈는데, 사보 기사를 작성하면서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김민식 기자 25p Relay Game '서머너즈 워'

처음 기자 활동으로 설렘 반 걱정 반이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최동민 기자 26-27p Hot Game '게임빌프로야구 2020 슈퍼스타즈'

이렇게 긴 글을 적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어 즐거웠고,
다른 기자님들과 친해질 기회가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초라한 기사를 멋지게 다듬어 주신 사보 편집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영 기자 28-29p Together 꽃꽂이 동호회 '꽃us'

처음 사보 기자로 참여하게 됐을 때 막막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연식 기자 30-31p The Legend '모여봐요 동글의 숲'

주제를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떠오른 게임으로 선정했는데, 생각만큼 잘 써지지 않아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보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변기오 기자 33p Games In My Pocket '낚시의 신'

글 쓰는 것이 어렵고 막막했지만 기자단에 참여하게 되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새봄 기자 36-37p 게피컬처 무의식과 자연의 만남 '팀보터63'

글쓰기를 좋아해서 대학생 때 에디터를 하고 싶다고 설친 적이 있었는데, 한때의 해프닝으로 끝낸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어려웠지만, 그 시절의 소원을 성취해서 기쁘네요(웃음). 앞으로는 개발자가 저의 천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규호 기자 38-39p Monthly Item 마음 가는 대로 그려보자 '3D 펜'

사보 기자를 통해 접해보지 못했던 3D 펜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선 기자 40-41p 맛세상 '봄철 맞이, 아스파라거스 활용법!'

덕분에 다이어트는 망했지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PS. 튀김가루를 부침개 반죽 정도의 농도로 물에 개어서 적당히 묻혀 튀겨도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튀김... 최고야.....

한정욱 기자 42p 에브리원 겜공 '배틀그라운드' 용어

매월 나오는 사보를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 이번 호에서 작지만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사보 제작에 참여한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상수 기자 43p 복면겜왕

어떻게 하면 주제도 재밌고 글도 재밌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하는 사보라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김경환 기자 45p We-WIT '호랑이와 하룻강아지'

그림이라고는 졸라맨만 그려 봤는데 처음으로 그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그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Pulitzer Prize

게임빌컴투스뉴스는 임직원이 기자단으로 참여하여 만들어 집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한 달 간 열심히 취재하고 즐겁게 노력해주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가장 애써주시고 의미 있는
기사를 작성해 주신 기자 두 분을 선정해 퓰리처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2020년 5월호 사보 퓰리처상 수상자들을 공개합니다.

5월호 우경아 기자

너무 좋은 기사들이 많은데 부족한 제 기사를 퓰리처 상으로 채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사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보는 건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더 레전드 코너를 준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잘 알고 있는 것과 정보를 전달한다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제 부족한 글이 재밌어 보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호 석연수 기자

보고 싶던 전시회를 보고 간단한 후기 형태의 글을 썼을 뿐인데, 생각하지도 못한 퓰리처상까지 받게 되다니... 함께 알아봐 주시고 도와주신 편집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직접 사보 기자를 해보니 관심 있는 분야를 즐길 수도 있고 코너로 소개할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기사를 쓰게 되면 어떤 것을 써야 하나 긴장도 많이 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어떤 콘텐츠를 소개할지 정한 후로는 편집부에서 잘 설명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 놓인 사보를 무심히 읽었었는데 직접 기사를 작성해보고는 월간 사보를 위한 많은 분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보에도 어떤 기사들이 소개될지 기대가 되네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후기를 마칩니다.

Communications
Talk Knock

본 코너는 독자 여러분의 구독 소감을 싣는 페이지입니다.
게임빌컴투스뉴스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매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구독 소감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매달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기간 : 2020년 6월 16일까지
메일 주소 : gcnews@gamevilcom2us.com (주소, 이름, 연락처를 함께 적어주세요.)

To. 게임빌컴투스뉴스

이번호부터 처음으로 게임빌컴투스뉴스를 읽게 되었습니다. 프로야구와 '서머너즈 워'로 유명한 회사의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던 유용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인기 게임 소식뿐만 아니라, 게임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보인 것 같습니다. 계속 꾸준히 독자 생활을 유지해야겠네요. 또 고전작이나, 다른 게임회사 명작들을 같이 소개해 주시니 게임업계를 엿볼 수 있는 사보로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 주시는 사보 담당 및 기자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한 삶 보내세요!
강형석 (서울시 중구)

게임빌컴투스뉴스를 읽으면서 게임빌, 컴투스가 어떤 회사이며 어떤 부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지 점점 알게 됩니다. 이번 호도 <Game People>을 통해서 '자유롭고 활기차며 역동적이다'라는 느낌을 한가득 받았는데요. '서머너즈 워', '별이되어라!', '낚시의 신' 등 유저들의 손안을 행복하게 해주는 수많은 게임들이 이런 회사, 부서, 사람들 속에서 꾸준히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은미 (경북 경산시)

발매 6주년을 기념해 '별이되어라!' CHANGE 1.0 업데이트 내용과 장성규에 이어 새롭게 '별되!' 모델로 발탁된 美친 듀오 '노라조'와의 인터뷰 잘 보았습니다. 노라조의 '별되!' 홍보 영상은 유튜브에서 찾아보니 美친 텐션이 뿜뿜 느껴지더군요. 보다 쉬운 플레이와 엄청난 보상,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 등등 와다다다 다 주는 이번 업데이트로 더욱 유저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별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숙 (서울시 관악구)

★ 사보 구독을 원하지 않으시면 메일로 알려주세요.

나도 이제 유튜브 스타

야너두?

▶ 게임빌 컴투스 채용 : 게컴TV

회사의 얼굴이 될 기회! 나도 이제 유튜브스타다!!
유튜브에서 '게임빌 컴투스 채용' 검색 > 구독 및 알림

※ 출연시 소정의 감사선물을 지급합니다.

영상 출연 희망하는 임직원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주저 말고 인재채용·교육팀에 연락 주세요! (옆자리 동료 추천도 가능)

* 영상 외 카드뉴스, 사진, 글 및 웹툰 형태의 컨텐츠도 제작될 수 있습니다.
* 컨텐츠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도 환영합니다.
* 출연시, 명예로움과 함께 소정의 선물을 지급합니다. :D
* 얼굴 공개 부담스러우면 소품 활용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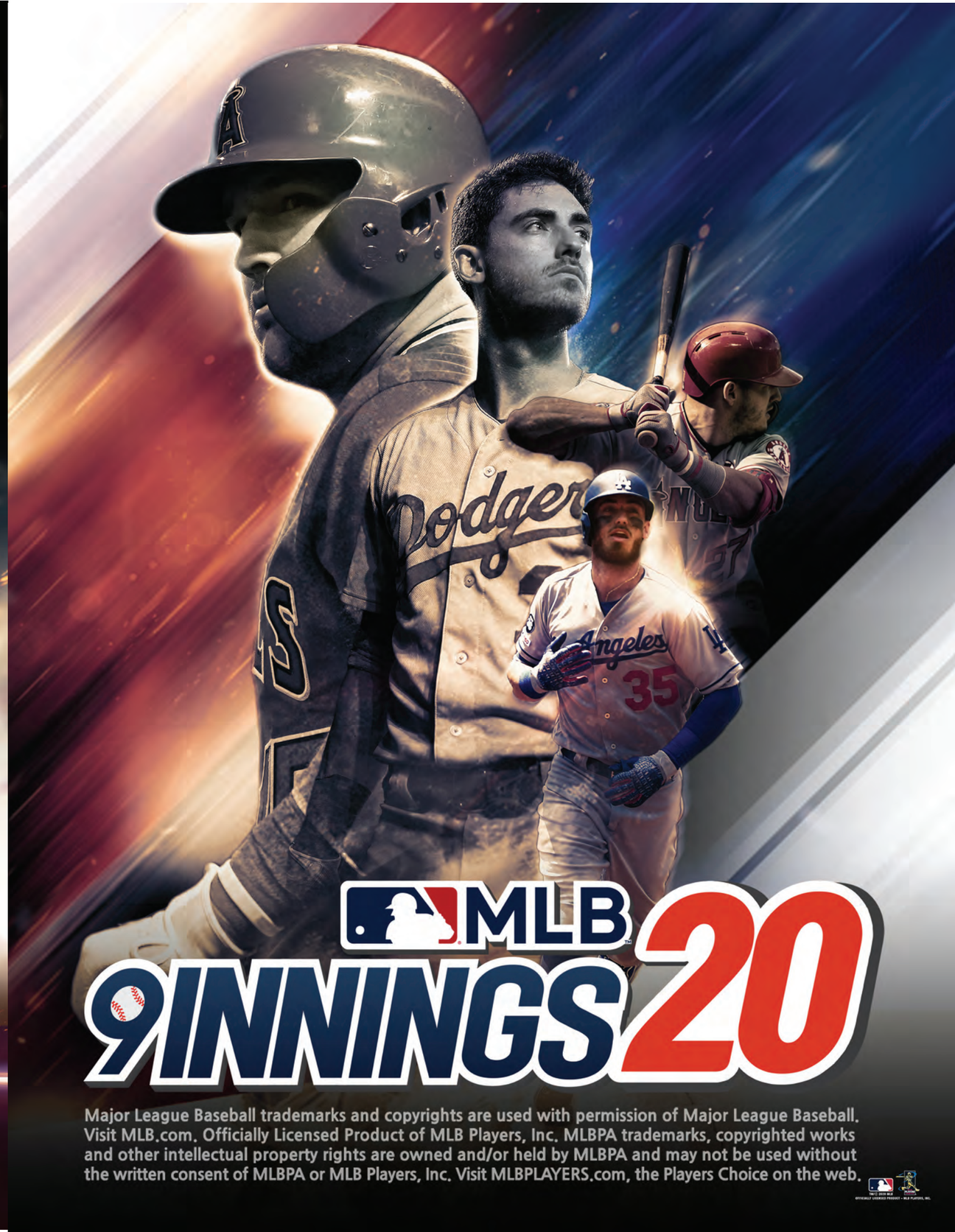
· 영상촬영에 관심있는
게임빌/컴투스/GCP/해외지사 모든 직원 분들
· 사내부부/사내커플/사내베프, 외국인 직원 (선호 1위)
· 핵인싸 & 핵아싸 / 팀 내 홍일점 & 청일점
· 팀단위 출연 환영 (동호회, 부서별)
· 직무, 직급, 부서 무관 개인 출연 환영
· 취준생 또는 대학생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 분
· 진행 중인 채용 포지션 홍보 원하는 각 부서장님들
그 외 사보 구독자 분들 (직원 아니어도 환영)
게임빌 컴투스에 애정 많으신 모든 분들을 기다립니다.

Contact

RECRUIT@GAMEVILCOM2US.COM

gcplayer_gamevilcom2us
blog.gamevilcom2us.com
facebook.com/gamevilcom2us.recruit

©2015-2020 Com2uS Corp. All Rights Reserved.



Major League Baseball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 used with permission of Major League Baseball. Visit MLB.com. Officially Licensed Product of MLB Players, Inc. MLBPA trademarks, copyrighted work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owned and/or held by MLBPA and may not be us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MLBPA or MLB Players, Inc. Visit MLBPLAYERS.com, the Players Choice on the web.